

News

금융위, 올해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2조원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2조원 이상 확대.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몰아줬다는 지적 때문.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을 제한한다. 또 인터넷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점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인터넷은행별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추진

케이뱅크 1.2조 유상증자...카카오뱅크와 '진검승부'

한국경제

케이뱅크는 26일 이사회에서 1조2499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 인터넷은행의 단일 증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 케이뱅크가 대규모 자본 확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암호화폐 열풍으로 수신잔액이 증가했기 때문. 케이뱅크는 독점적으로 업비트의 실명계좌를 발급

금융위, 9월까지 금소법 위반해도 제재 없다

이데일리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9월까지 금소법이 금용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을 의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 그런데 새로운 조치들이 많아 초반에 창구, 상품 판매 등에 혼란이 컸다

매력 사라진 적금...은행들, 상품 구조조정

e대한경제

은행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이 몰리면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이 늘어나는 반면 적금 등 수신상품에 대한 관심이 줄어 '적금 상품 구조조정'에 나서는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5월 25일 기준 677.9조9원. 지난달 말 626.5조원과 비교하면 3주 사이 51.5조원 급증

보험사 부채 듀레이션 50년으로 확대, 중소형사 자본확충 비상

머니투데이

금감원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부채 듀레이션이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세칙 개정 예고.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에 자본확충에 비상. 보험업법 상 보험사는 RBC 비율 100% 이상, 금감원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해 RBC 비율이 200% 이하인 회사들은 자본확충이 시급할 수 밖에 없다.

길어지는 조정장, 거래대금 줄어도 빚투는 '역대 최고'

뉴스토마토

길어지는 조정장에도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만간 지수가 반등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 유지. 지난 24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3.2조원으로 집계. 신용용자 잔고는 지난 4월 말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3조원대를 지속 중

직투 어렵네 랩어카운트 향하는 개미들

서울경제

증시 조정세로 증권사 랩어카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 건수는 201만 3,466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만 건 돌파. 가입 고객도 꾸준히 늘어 182만 명에 이르렀고 랩어카운트 가입 금액도 138조 원에 달한다. 둘 다 월말 기준 사상 최고치

캐롯손해보험, 1000억원 유상증자... "재무건전성 확보"

이데일리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한다고 26일 공시. 기존주주에게 900억원을, 제3자에게 100억원을 각각 배정하는 방식. 캐롯손해보험 지분 51.6%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손보 측은 "캐롯손보가 설립 당시 수립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